

車·조선업계, 22대 국회 예의주시

“전기차 인프라·해외인재 확보 절실”

기업환경 개선 기대감 높아져
전기 등 에너지 요금 인상 촉각
인력난 해소 위한 정책지원 호소

국내 산업계가 저성장, 고물가, 저출산 등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22대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차기 국회도 여소야대로 이어지면서 위축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 확대를 높여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최근 침체된 전기차 시장 분위기를 반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전기 요금 인상은 전기차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완성차 업계는 물론 전기차 대기 수요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정부는 한전의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 할인 종료에 따라 공공 전기차 급속 충전기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100kW 기준 kWh당 309.1원에서 347.2원으로 올랐다. 이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운영하는 민간업체들도 줄줄이 인상에 동참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인 저렴한 유지비가 사라진



지난 2일 서울 시내 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뉴시스

다면 구매 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은 충전 인프라 문제나 안전성 등의 우려에도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렴한 유지비가 핵심이었다”며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같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주력 산업인 노동집약적산업인 조선업계는 해외인재 유치가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국경제는 인

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산업 전반의 인력 부족이 만연한 상황이다”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생산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우선은 해결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지원 확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장벽과 문화 차이를 겪고 있는 이민자 가족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배터리3사,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박차

2040년 2089억弗 시장 전망
지분투자 등 다양한 형태 참여

전기차 생산과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한 배터리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갖춰지면 폐배터리로부터 원료를 회수할 수 있어 탄소 감축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지난 2022년 80억달러에서 2040년 2089억달러로 26배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이 배터리 재활용 의무 비율을 높이는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으로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

루션·삼성SDI·SK온)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지분투자 등으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1년 미국 배터리 재활용 기업 라이사이클에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과 함께 양사 각 300억원을 투자해 2.6%를 확보하고 10년간 니켈 2만톤 공급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중국 광물 제련 기업 화유코 발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SDI는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스크랩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삼성SDI는 국내 배터리 재활용 기업 성일하이텍의 지분 8.79%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SDI는 배터리 불량품이나 폐기물을

성일하이텍에 공급하고 성일하이텍이 원료를 추출해 다시 삼성SDI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SK온 역시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사업을 전담하는 헝가리 법인을 세웠다. SK온이 헝가리를 택한 이유는 유럽 내 친환경 규제 강화 분위기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배터리 생산 시 발생하는 불량품, 스크랩 등 폐배터리 처리를 외부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에 맡겼지만 이제 SK온이 직접 관여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재활용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적인 과제”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추진한다면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HD현대-팔란티어, 무인수상정 개발 MOU

2026년까지 정찰용 USV 개발

HD현대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이하 팔란티어)와 손잡고 무인수상정(Unmanned Surface Vessel, USV) 개발에 나선다.

HD현대는 최근 미국 워싱턴 D.C.의 팔란티어 사무실에서 팔란티어와 ‘무인수상정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 해군, 육군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미국 최고의

방산 AI(인공지능) 기업으로 꼽힌다. 세계 1위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사와 미 해군의 통합 전투시스템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2026년까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찰용 USV를 개발하고, 이후 전투용 USV로 개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HD현대의 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베커스의 자율운항 소프트웨어와 팔란티어의 미션 오토노미(Mission Autonomy, AI 기반 임무 자율



HD현대중공업 위원호 특수선사업대표(왼쪽), 팔란티어 라이언 테일러 CRO 및 CLO가 최근 미국 워싱턴D.C.의 팔란티어 사무실에서 ‘무인수상정(USV)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화)를 접목한다. HD현대중공업은 또한 탐재될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통합하고, 고성능 선체 개발을 맡는다. /차현정 기자

SK온-지멘스 DISW, 스마트공장 구축 협력

‘디지털 트윈’ 기술 등 활용

SK온이 글로벌테크기업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이하 ‘지멘스 DISW’)와 협력해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배터리셀 제조 과정을 혁신하고 비용을 절감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SK온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지멘스 DISW와 ‘배터리 제조 공장 디지털 트윈 구축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SK온 이석희 대표이사 사장과 오기영 팩토리 이노베이션 담당, 지멘스 DISW 토니 헤멜건(Tony Hemmelgarn) CEO, 오병준 한국지 사장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 트윈’은 공장을 설계 및 가동하기 전후로 가상 환경에 그대로 복제해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다. 지멘스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꼽힌다.



(왼쪽부터)이석희 SK온 사장과 토니 헤멜건 지멘스 DISW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배터리 제조 공장 디지털 트윈 구축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온

SK온은 지멘스 DISW의 개방형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인 ‘엑셀러레이터(Xcelerator)’ 제품군에 포함된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와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가상 공장과 실제 현장 간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로 장비 보전 시간이나 운영 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LG에너지솔루션, ‘AI’ 기반 업무혁신 추진

‘AI 통합 플랫폼’ 연내 구축 방침

LG에너지솔루션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 도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먼저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한 건 ‘유튜브 트렌드 리포트’다.

유튜브는 시장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지만, 정보의 양이 워낙 많은데다 콘텐츠별로 정확성이나 객관성 정도의 차이가 커 임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컸었다.

‘유튜브 트렌드 리포트’ AI가 유튜브 영상을 분석해 배터리 관련 분야 최신 트렌드 내용을 정리해 임직원에게

메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임직원들의 시장 파악 업무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기술인 대화형 챗봇도 활용 단계에 들어갔다. 회사내 경력 사원이 전체 국내 구성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직원들이 빠르게 회사 제도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AI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AI 통합 플랫폼’을 올해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 플랫폼을 통해 ▲고객 및 협력사 계약 관리 ▲전사적 자원 관리(ERP) ▲소프트웨어 개발 ▲원자재 구매 ▲배터리 제작 등 전체 업무 분야에 AI를 접목시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LCC업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팔 걷어

울란바토르, 제주 등 신규 취항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2007년에 개항한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그동안 코로나 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공항 이용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국내 항공사들이 국내, 국제선 운항 확대와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진행하면서 침체된 공항 활성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의 지난해 이용객은 25만명으로 2022년 5만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항공사마다 이용객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진에어는 5월 8일에 무산~울

란바토르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 무안~울란바토르 노선은 B737-800 항공기가 투입되며, 매주 수·토요일에 출발하는 일정으로 5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운항한다. 출발편은 현지 시각 기준으로 무안국제공항에서 21시 30분 출발해 다음날 0시 30분에 울란바토르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울란바토르에서 1시 30분에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에는 5시 50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제주항공은 오는 24일부터 무안~제주 노선 주 4회 일정으로 운항에 나선다. 제주항공의 무안~제주 노선은 제주에서 매주 수·일요일 오후 6시 55분, 화·토요일에는 오전 7시에 출발하며, 무안에서는 매주 월·금·일요일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하는 일정으로 운항한다. 내달 1일부터는 수요일 오전 7시 40분 무안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추가된다. /양성운 기자